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

2020.6.11.(목) 11: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020. 6. 11.(목)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우선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과
이로 인한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기업도산, 실업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국민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와
우리나라, 유럽 등 보험회사의 준비상황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보험업계는
경제상황 및 제도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적응력 개선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Ⅱ.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이번 제5차 회의의 주요의제는
「재보험업(Reinsurance) 제도개편방향」입니다.

그동안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또한 재보험 허가와 관련해서도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없이

재보험 겸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 다른 금융업과는
다르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선,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業”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손해보험업과의 비교를 통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완화를,

규제차등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차등화를 하겠습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재보험 허가간주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보험을 별도의 “業”으로 분리함에 따라
다른 금융업의 경영허가절차와 유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으로
세분화하고 종목별 허가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종 방안은
금감원, 보험전문가,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재보험업 제도개선 실무TF”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Ⅲ. K-ICS 및 IFRS17 도입준비

이번 회의에서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제3차 개편안과
IFRS17 재무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로의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개편안은
그간 2차례에 걸쳐 진행된
K-ICS 영향평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s)과의
정합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3차 영향평가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에 있어
연착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전반의 재무영향을 분석하는 등
감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회사의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준비가 미진한 회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V. 마무리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험산업은
2023년 IFRS17과 K-ICS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금리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보험산업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최종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보험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저금리, 저성장 시대 속에서 맞이하게 될
보험시장의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